

2009년도 제37회 재미한인 수의사회 정기총회 참가기



김시영

- 도그앤캣 24시 동물병원장
- 경기도수의사회 이사
- seeyoungking@hanmail.net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이하 WSAVA)를 다녀온지 2년만의 해외여행이었다. 임상 수의사이기에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병원을 떠나 잠시 새로운 세상으로 며칠간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솟구치곤 한다.

지난 9월, 경기도 수의사회 백충기 회장님께 12월에 열리는 미국 LA와 멕시코 칸쿤에서의 재미한인수의사회 정기총회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맙게도 허락해 주셔서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여행 가방을 꾸릴 때 아내와 약간의 의견차가 생겼다. 아내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 주려고 하고, 필자는 아주 최소한 것만을 가지고 가려하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그리 길지 않은 여행이기에 적절히 타협해서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가방 하나 정도로 짐을 간단히 꾸렸다.

한국은 한겨울이지만 LA는 낮 기온이 섭씨 20℃ 전후의 초가을 날씨이고, 칸쿤은 낮 기온 30℃가 넘는 한여름 기온이어서 출국 당일은 추웠지만, 되도록 가벼운 복장을 택했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이기 때문일까?

또 다른 설렘으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새벽2시가 넘어 겨우 잠에 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꾸렸던 짐을 다시 풀어 여권, 신분증, 환전한 달러 등을 재확인했다. 아내와 동행하지 않는 여행이기에 미안한 마음과 함께 차려준 아침을 먹고 서둘러 출발했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 11시, 너무 서둘렀던 탓에 무려 4시간 전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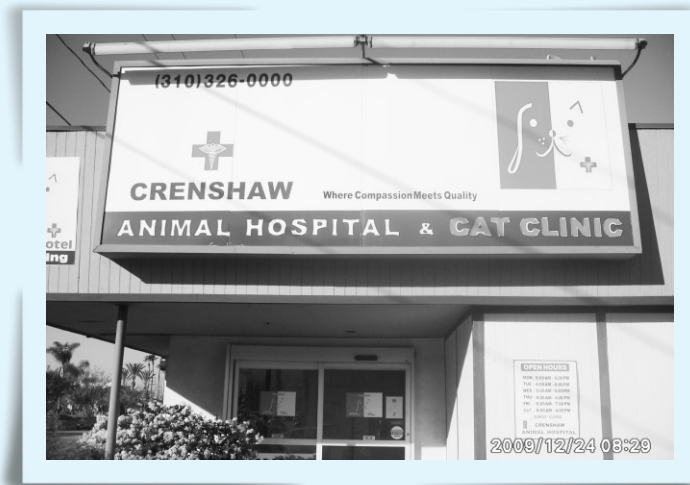
이어서 2011 WSAVA 강종일 조직위원장님의 도차에 이어 백충기 회장님이 오셨다. 보안 검색 후 2009년 12월 23일 오후 3시 대한항공 KE17편으로 LA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필자는 참가 자리를 선호 한다.

이륙과 착륙 때에는 멀리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고, 비행 중에는 수시로 변하는 구름의 모양과 때론 해가 뜨고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옆자리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까지 마치고 현재 UCLA에 다니는 한국계 일본인 여학생이 앉았다. 방학을 맞아 3주정도 한국에서 머물다 돌아간다고 했다.

그 여학생과의 유학생활에 대한 많은 대화로 긴 비행시간은 지루하지 않았다. 기내에서는 두 끼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옆의 학생은 비빔밥과 녹차죽을 선택했지만, 난 소고기와 오믈렛을 선택했다. 학생 시절 배낭여행을 하며 먹었던 예전의 그 기내식 맛은 아닌 것 같았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후 약 10시간이 지나 현지시간 12월23일 오전 8시30분에 LA공항에 도착했다. 시차는 LA가 17시간 늦다.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라 약간 긴장되었지만, 입국 수속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만, 지문채취를 하기위해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며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초록빛의 스캔판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해야 했기에 좀 번거로웠다. 공항에는 백희장님의 선배이신 수의사이며 한 의사이신 '이봉수한방병원'의 이봉수 원장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이원장님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는 마이클잭슨이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했던 Staples Center도 보였다. 30여분을 달려 하루 밤 묵을 Oxford Hotel에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2009년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장 이병희 원장님 내외와 나중에 도착하신 지난 10월25일 경기도수의사회에서 강연했던 Dr. Henry Yoo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식사 후 미국의 동물병원을 탐방하고 싶어 Dr. Henry Yoo께 부탁하여 직접 경영하시는 'Crenshaw Animal Hospital & Cat Clinic'을 방문하였다.



10여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단층의 단독 건물로 약 100평정도 규모라고 했다. 내부에는 소박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눈에 들어왔다. 보호자 대기공간이 있고, 우측에는 약 2평 정도의 접수실에 컴퓨터 모니터 4대가 있다.

정면 복도 옆에는 보호자 교육용 브로셔가 비치되어있고 양쪽으로 진료실이 1개씩 있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는 체중계, 그 위로 보호자 교육용 TV에서는 Dental Care에 대한 안내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제1진료실 뒤편에는 임상병리실, 수술실이 있고, 제2진료실 뒤편에는 스케일링 등을 할 수 있는 처치실과 이어 방사선 촬영실로 구획되어 있다. 방문 시 근무자는 Receptionist 1명, Technician 2명, Associate Doctor 1명이 있었고, Dr. Henry K. Yoo의 부인께서 도와주시고 계셨다.



Crenshaw Animal Hospital에 들어가면 이 곳만의 독특한 안내판이 있다. Dr. Henry K. Yoo께서 안내판의 내용을 이해하겠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가 이 병원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Star인가? 첫 번째는 Patients & Their Chauffeurs, 두 번째는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사람, 세 번째는 Reception staff, 네 번째는 Technical staff, 다섯 번째 Veterinary extern 그리고 마지막 Others에 Associate Doctor와 Dr. Henry K. Yoo 이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동물과 그 보호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뜻일 것이다. 시스템화 되어있는 이곳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수의사 이외 Staff의 요구에 의해서 진료한다는 것이 남다르다 하겠다. 진료상담 이외의 모든 것이 테크니션과 리셉셔니스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20케이스 이상 진료해도 주사기 한 번 잡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한국의 동물병원과 달리 정제나 캡슐을 통에 담아서 약이 처방되고 있다. 소형견들조차도 정제로 나가는데 분말로 투약할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염성 폐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또한 Digital X-ray장비가 있었고, 초음파 진단기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초음파검사가 꼭 필요하면 Specialist 병원에 보내거나, Specialist를 부르면 기기를 가지고 병원으로 방문하므로 개인병원에서는 비싼 초음파 진단기를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 로컬 병원들은 원장들 실력이 출중하지만, 고가 장비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보호자의 불만,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로컬에서 힘든 케이스는 Specialist가 있는 병원으로 보낸다

고 한다. 필자가 이번 방문동안 만났던 50~60대의 원장님들은 현직에서 수준급의 진료를 하고 계셨고, 꾸준하게 임상공부를 하고 계셨다. 진료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 가정과 사회에서 사적 또는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 주말과 휴가 때는 여행을 하면서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기는 모습이 부러웠다.

도착한 날 저녁 7시부터 LA '용궁 Restaurant' 에서 "2009년도 제37회 재미한인수의사회 정기 총회"가 있었다. 오창영 재무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2009년도 이병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원소개가 있었다. 2008년도 강동원 회장, 남가주수의사회 소진욱 회장께 공로패 수여식과 이어 차기 신동국 회장의 환영인사 말씀이 있었다.

총회에서는 한국 손님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이때 백충기 회장님은 '한국 수의사 및 수의사회 현황과 전망' 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강종일 조직위원장은 '2011 WSAVA World Congress' 홍보를 위한 Presentation을 하였다. 강종일 조직위원장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세계 78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수의사대회의 제주도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상승, 세계 속에서 한국수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했다.

2011 WSAVA는 미국수의사회에서 보수교육을 인정하고 참가비 등은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재미한인 수의사들이 많이 참석하고 다른 분들께도 홍보해 주도록 부탁을 했다. 이에 재미한



인수의사회 신동국 신임회장은 2011 WSAVA 개최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격려하고, 보다 많은 수의사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2011 WSAVA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백충기 회장님은 경기도수의사회와 남가주한인수의사회의 상호 협력증진과 교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가주한인수의사회 소진욱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총회가 끝나고 백회장님의 숙소에서 승원표 원장님, Dr. Henry Yoo, 이병희 원장님, 강종일 조직위원장은, 그리고 필자는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 꽃을 피우다 잠자리에 들었다.

■ 다녀왔습니다

12월 24일 오전 9시30분 멕시코항공 MX947을 타고 칸쿤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LA 공항으로 이동했다.

LA와 칸쿤은 6시간의 시차가 있다. 칸쿤은 멕시코 땅이지만, Florida Miami와 가까운 관광도시로 많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많은 현대식 고급호텔들은 하얀 백사장 옆에 있고, All include package로 저렴하게 식사가 제공된다.

또한 Parachuting, Jet skiing, Scuba diving, Snorkel, Golf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Yucatan 유적이 있어 관광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공항 도착 후 Grand Oasis Hotel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했다. 저녁식사 후 Private cocktail reception을 하며 자기소개 및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고, 특히 동문인 재미한인수업의사회 재무이사 오창영 선배, 부인 김혜경 후배와 만날 수 있어 더욱 즐겁고 의미가 있었다.

12월 25일 오전에는 Xel-Ha Echo park를 관광했다. 햇살이 따가워 공원입구의 매장에서 모자와 반팔 라운드티를 샀다. 이곳의 입장료에는 음식, 술, 간식, Snorkeling 장비, Life jacket, Deck chair, Floating inner tube, 자전거 이용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인이 돌고래 훈련 체험과 갖가지 모험을 즐길 수도 있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멕시코 음식과 멕시코의 대표 술인 테킬라를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일 것이다. Xel-Ha에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후 수영장 옆에서 자연스럽게 Cocktail Party가 이루어졌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부인들이 함께 부르는 캐롤송과 합창도 들으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밤늦게 몇몇 원장님들과 'Coco Bongo' 라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트클럽이 아닌, 과거와 현재, 영화와 현실을 조화시켜 놓은 다이나믹한 공연으로 연출되었다. 입장료만 \$60로 멕시코 물가와 비교해 상당히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매일 수 백명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한다. 만약 이 공연을 보지 않았다면 칸쿤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12월 26일에는 Chichen Itza에 다녀왔다. 마야문명의 유적지인 이곳은 최근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유적지를 통해 한때 최강국이었던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 적군을 포로로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장소와 고대 축구경기장을 보았다.

축구경기장에서는 양 팀이 목숨을 걸고 축구를 했으며, 특히 이긴 팀의 주장은 가장 건장한 남자로 추앙받으며 제물로 바쳐졌는데 이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곳은 웅대하고 위대한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지리학적 위치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날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저녁에는 호텔내의 양식 레스토랑에서 참가자 일행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세미나 룸으로 옮겼다. 조기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신동국 회장님이 해주셨다.

이어서 제3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수의사 김현영 선교사님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김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든 산칼로스 국립대학의 수의병리학실험실에 대한 소개와 Heifer international의 일원으로 기아해방 선교활동, 과테말라 교도소의 제소자 양계교육 등 수의과 의료선교활동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어 Dr. Henry Yoo의 'Recession buster in veterinary practice' 라는 주제로 불황을 극복하는 동물병원 경영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종일 조직위원장님은 이번 방문동안 선처와 후의를 베풀어 주신 재미수의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2011년 WSAVA 세계대회 때는 '2011년 10월을 모국 방문의 달' 로 정하여 많은 방문 부탁과 '재미한인수의사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한다' 는 제의도 함께 했다.



귀국일인 12월 27일 오전 6시30분에 칸쿤 골프장에 갔다. 김승호 원장님 부부, 권태삼 원장님 부부, 이병희 원장님 부부, 백충기 회장님과 필자 등 8명이 2팀을 만들어 라운딩을 즐겼다. 찌는

다녀왔습니다

듯한 무더운 날씨였지만, 주변경관이 수려해 더 없이 좋았다. 각 홀 주변에는 연못과 저수지 같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병희 원장님은 이런 곳에서 가끔 악어도 만난다고 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날은 악어를 보질 못했다.

이곳 골프장의 특징은 그린피만 내면 클럽하우스에서의 식사와 음료가 무료이고, 클럽하우스에서 주문한 식사도 라운딩을 하는 홀로 배달이 된다. 또한 샌드위치, 햄버거, 얼음으로 가득채운 캔맥주와 간단한 안주 등을 실은 전기차가 라운딩 중에 수시로 다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라운딩을 끝내고 호텔로 가서 귀국 준비를 했다. 참가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우리 일행은 오후 3시15분 MX342편으로 간쿤 공항을 출발하여 멕시코시티 공항으로 갔다.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오후 6시45분 MX910편으로 출발하여 LA공항에 도착했다.

마침 전날 있었던 비행기내 테러 미수 사건 여파로 LA 공항은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고, KE17편은 00시10분에 출발인데도 약 1시간 지연되어 이륙했다. 귀국 길에서 이번 여행을 뒤돌아보며, 내가 수의사임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재미한인수의사회는 1972년 창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국 및 북미 수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20여명의 회원 수의사가 있고, 미국수의사 면허자는 160여명 정도이며, 120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부 쪽에서 임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젊은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재미한인수의사회에 대한 자료는 에서 더 얻을 수 있고, 앞으로 미국수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학생이나 젊은 수의사가 있다면 많은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강동원 원장님의 블로그 <http://donandcarol.spaces.live.com>에 가보면 미국수의사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간접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여행의 기회를 주신 경기도수의사회와 백충기회장님, 추운호상무님, 2011 WSAVA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종일 조직위원장님, 여행 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재미한인수의사회 강동원, 이병희 전임 회장님, 신동국 회장님, 권태삼 원장님, 김승호 원장님, Dr. Henry K. Yoo, 오창영 재무이사님 등 임원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가족께도 우리 일행을 대표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병원을 비운 동안에도 동물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준 Dr.김학용, Dr.이미경, Staff 김소영, 김혜경, 전해지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